

장흥군, 내달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100대 국정과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위해 임시 개소 구 보건소 1층 리모델링...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시설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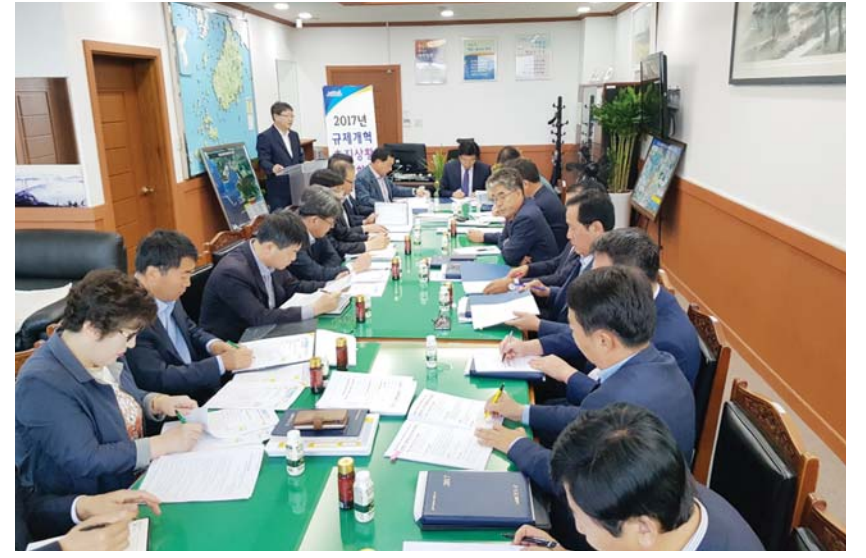
장흥군은 오는 11월 1일 치매안심센터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는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임시 개소해,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무공간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치매 기본업무 수행한다. 장흥군은 국비로 시설비 6억원과 운영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치

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시설에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구 보건소 1층 335㎡를 리모델링해 들어서게 될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 센터, 상담검진실, 치매카페 등을 완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형 치매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치매안심센터 조기 설치를

위해 설치와 운영단을 2개 팀으로 조직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입주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과 건축 인테리어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인력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서는 장흥경찰서, 영암병원 등과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월 4일부터 30명을 대상으로 실버인지도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중 장흥군보건소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예방·돌봄·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완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진도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업무 전반 분야별 실적 점검...조례 개정 등 계획

진도군이 지난 2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순만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해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이 되는지 검토하고 논의했다. 특히 군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시 사업자 부담 완화, 긴급 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등 13건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날 논의된 안전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기업·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직장내 올바른 성(性)문화 정착 통합 교육



4대 폭력 예방 중심 진행

장흥군은 지난 26일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올바른 직장 내 성(性)문화 정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전문 기술택 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 및 예방법, 피해 후 대처 방법, 남·여 양성평등 의식 심어주

기 등의 내용이 사회적 문제점과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됐다. 직장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이 이전에는 그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남성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아직 우리 사회는 남성이 다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 예산안·노인 고독사 예방 등 의결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은 27일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지역의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일 반회계 4천 253억 5천 943만원, 특별회계 226억 3천 665만원과 기금 105억 8천 249만원의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5개 사업 1억 3천 996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였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난 무안고등학교 학생의 방청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도 백제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회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의원의 역할을 몸소 경험하



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에 대

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주시,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상'

지적행정 혁신서비스

여주시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25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7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주시의 '시민생활 속으로 지적행정 혁신서비스'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전남도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여주시는 농어촌을 직접 찾아 토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도란도란 지적사랑방',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 유도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여주시의 사례는 지적행정과 관



련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소통 3.0 OK! 다채널 민원서비스' 사례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